

# 21세기에도 '세일즈맨의 죽음' 이

### 이타적 유전자

손필영  
시인·국민대 교수



상반기가 지나면서 전국은 장마 습기로 가득 찼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에 들어가 쟁의를 이어가고 있다.

참가자들은 높은 임금 인상을 적용, 유급휴가 약속 이행, 초과이익성급(OPI) 기준 개선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올해 2분기 모처럼 실적 반등을 보인 삼성전자의 향후 행보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렇게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처음으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는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노조로서 구시대 파업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전체 노동 조건을 고려하면 좋겠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삼성전자 노조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월급을 인상하고 초과성과급 기준을 개선하라는 방향보다 본질적으로 소모품으로만 사용되다가 시간이 지난 뒤 버려지는 구조에서 벗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총파업에 돌입한 8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날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다쳐도 보호받지 못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이나 노조 가입도 하지 못하는 임시직들의 상황도 포함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면 국민적 동조를 얻을 수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은 현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가치의 변화와 가족의 문제를

잘 풀어내 시대와 관계없이 언제나 깊은 감동을 준다. 그리고 보니 오래전 대학 때 윌리 로만의 대사를 읽으시던 교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던 일도 기억난다. 60세를 넘긴 주인공 윌리 로만은 평생 먼 거리를 운전하면서 물건을 파는 일을 해 온 가장이다.

윌리: 피곤해 죽을 지경이야. (플루트

소리가 찾아들었다. 윌리는 린다 옆 침대에 앉는다. 좀 멍하니 할 수가 없어.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여보./... 윌리: (잠시 뒤) 갑자기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었어. 차가 자꾸 길가로 빠지는 거 있지?

극은 정신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있고 체력도 바닥난 윌리(주인공)가 등장하면서 시작된다. 아내는 태어나 이름 지을 때부터 알아 왔던 사장님(전 사장님의 아들)을 만나 내근직을 부탁해보라고 말한다. 그는 온 인생을 다 바쳐 한 회사에서 영업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여유 없는 생활만 남았다.

윌리:...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고장 나기 전에 내 것으로 가져 왔으면 좋겠네! 만날 고물만 내 차지야! 막 자동차 할부가 끝나니 폐차 직전이지. .../ 린다:... 여보. 하지만 이번만 내면 주택 용자 할부도 끝이에요. 이것만 내고 나면 여보, 이 집이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 윌리: 이십오 년이야!

현대는 할부와 용자의 시대이다. 할부로 물건을 사고 25년, 30년 용자를 얻어 집을 산다. 할부가 끝날 때쯤 되면 물건은

고장 나서 쓸 수 없게 된다. 아마 용자가 끝나면 윌리 로만처럼 사회생활도 끝이 날 것이다. 내근직을 부탁하자 그는 순식간에 해고당해 졸지에 생활을 영위할 방법을 잃었다. 평생을 바쳤든 성실했든 그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윌리: 보스턴에 가겠습니다./ 하워드: 로만 씨, 더 이상 보스턴에 안 가도 됩니다. / 윌리: 아니, 왜요? / 하워드: 더 이상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랫동안 이 말을 하려고 별러 왔어요. / 윌리: 사장님, 지금 저를 해고하는 겁니까? / 하워드: 로만씨에게는 길고 오랜 휴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세일즈맨의 죽음(민음사, 김유나 옮김)> 중에서

이 드라마의 깊은 의미는 작품을 읽으면서 느끼길 바라며 1949년 작품이지만 소개하는 이유는 소모품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저 때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은 20세기보다 더욱 극단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물질 중심의 삶은 인간의 삶의 조건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인가?

## 생명 존중의 나라다운 나라

### 기고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다. 해병대 출신이라면 누구나 자긍심을 갖는 상징적인 용어다. 그렇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왔던 꽃다운 청춘 해병대원이 순직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이나 훈련도 아니다. 구명조끼 하나 못 입고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투입돼 수색 작업을 했다. 결국 해병대원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 된지 벌써 1년이 되었다. 더욱

비통하고 가슴 아픈 건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아직 못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두 번에 걸쳐 통과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모두 거부했다. 지난 9일 역시 두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야 6당은 긴급 규탄대회를 열어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 범야권은 물론 전국 해병대전우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여론도 그렇다. 지난 11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70%에 육박한다.

언제까지 국론 분열의 갈등과 대립으로 갈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처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가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

에 부응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대표적인 해병대원 채 상병 특검 등은 이뤄져야 한다. 국내 정치 불안요인과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민경 경제를 우선 시해야 한다. 또한 국내 정치와 경제가 먼저 모두 안정을 찾아야 한다. 이후에는 국제정세의 혼란과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현안 대응에 국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청와대의 일이다. VIP께서 말씀하시는 도중 얼굴에 불 살 털리는 모습까지 지근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참석하시는 공식 행사를 연출하는 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는 대변인실 업무도 했다. 그

렇다보니 국가의 중대한 현안문제 발생과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지켜봤다. 또한 극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했다.

당시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고자 한다. 어느 날 선약이 있어 오찬을 하고 청와대로 복귀하는 도중이었다. 안보실 소속 행정관 여러 명이 100미터 달리기를 하듯 숨가쁘게 전력질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북한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것이다. 그렇듯 크든 작든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늘 긴장하며 신속하게 대응했다.

또 하나의 사례다. 언론에서 팩트와 다른 보도가 있을 때 문제점을 찾아 대응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었다.

간단하지만 두 가지 사례를 들었던 이유다. 안보와 외교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 언론도 그렇다.

비록 군과 경찰, 사정기관까지 통솔하는 무소불위처럼 보이는 대통령 권력일지라도 문제의 언론 보도에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한정된 업무인원 풀 속에서 인력손실과 시간 허비가 발생한다. 특히 이런 문제로 인해 보다 더욱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력을 다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 민의를 거역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한다. 정치권은 해병대원 채 상병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규명한 후 털고 가야 한다. 또한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국민이 바라던 민생·경제·저출산·안보에 전력하고 집중하길 바란다.

# 보약·홍삼은

## 40년 오직 한 길!

# 복고당 한약방

###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